

“4개월 내 셀트리온 3사 합병... 4공장, 韓·美 절반씩 건립”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간담회

타입어 제약·바이오 기업 도약 비전
글로벌 M&A 추진... 3분기 자금집행
“올해 매출 25% 이상 신장할 것”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그룹의 미래 비전 확보를 위해 내부 오퍼레이션에 집중하고 이사회 공동의장으로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29일 오전 공식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기업 인수 계획과 글로벌 타입어 제약·바이오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상에 대해 밝혔다.

전날 셀트리온그룹 내 상장 3사인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서 회장을 사내이사 겸 이사회 공동의장으로 공식 선임했다. 서 회장은 임기 2년 동안 경영 일선에 복귀해 직접 셀트리온그룹 사업을 진두지휘한다.

이날 서 회장은 “다시 돌아온 이상 그냥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올해 셀트리온의 매출은 25% 이상 신장할 것이며 내년은 더 큰 폭으로 신장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그룹 내 3사 합병에 대해서도 입을 열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29일 오전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셀트리온그룹

었다. 서 회장은 “3사 합병 단계는 거의 종료한 상태이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를 받아줘야 하므로 금융시장의 안정이 관건”이라며 “(시장) 안정되는 대로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고, 그러면 최대 4개월 안에 합병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셀트리온은 합병과 관련된 법적 절차 및 실행을 위한 내부 실무 검토를 마무리했으며, 국내외 주간사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서 회장은 그룹의 사업 경쟁력을 키우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거시적 관점에서 글로벌 기업 인수(M&A)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검토 회사는 10여개로 압축했으며, 오는 3분기 자금 집행 계획이다.

-P17) 등 후속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기대하고 있는 ‘렘시마SC’가 신약으로 올해 미국 FDA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들 제품을 신속하게 미국 시장에 선보이고 시장 점유율 확장을 위해 미국 직관 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셀트리온은 창립 이래 최다바이오시밀러의 허가를 신청해바이오시밀러 사업에서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 회장은 “오는 2030년 바이오시밀러 60%, 신약 40% 매출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제시했다.

현재 신약 파이프라인과 신규 제형 확보로 신약 개발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한다. 셀트리온은 ADC 항암제, 이중항체, 마이크로바이옴, 경구형 항체치료제 등 다양한 분

야에서 국내외 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플랫폼 기술과 항체신약 파이프라인 확보에도 집중해 신약 개발 기업으로 면모를 갖추 나간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조만간 준공을 앞두고 있는 글로벌생명공학연구센터가 신약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 회장은 미국 내 생산시설 준공에 대해서도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에 셀트리온 4공장을 짓는다면, 아마 절반은 미국에, 절반은 한국에 짓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면 의미있게 수용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미국에서 우리 제품이 9000억원 정도 팔리고 있는데 더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팬데믹 이전수준 항공편 회복 소비 등 경제회복 기대감 ↑

● 차이나 뉴스&리포트

리오프닝 선언 후 관광·비즈니스 활기
S&P “팬데믹 영향권 벗어나고 있어”

중국의 국내선 항공편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특히 쑤야나 항저우 등 중국의 주요 관광지나 경제 중심지는 오가는 항공편은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뛰어 넘었고, 국제선 예약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건은 늘어난 여행객 만큼 소비가 반등할지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방문객들이 실제 지출하는 규모는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

2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취날닷컴은 이달 들어 3주 동안 쑤야와 청두, 항저우, 광저우를 포함한 중국 여러 도시의 항공편 예약이 2019년 같은 기간을 넘어섰다. 수도인 베이징과 난징, 우한, 다롄 등의 예약도 2019년의 90% 이상 수준까지 올라섰다.

항공과 관광 및 숙박업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분야 중 하나다. 중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작년 12월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을 선언하면서 관광과 비즈니스 활동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취날닷컴에 따르면 중국의 최고 휴양지로 꼽히는 하이난 쑤야로의 항공편 예약은 이달 들어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45%나 늘었다. 사계절 봄 같은 기후

로 관광객이 몰리는 윈난성 파리로의 항공편 예약 역시 팬데믹 이전보다 20% 이상 늘었다.

한국과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선 항공편 가격은 낮아졌고, 예약은 크게 늘었다. 일본과 한국, 호주로 가는 국제선 편성이 늘면서 항공편 가격은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민항국은 3월 말~10월 말 항공기 운항 계획을 통해 홍콩, 마카오, 대만 간 항공편 수를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중국동방항공의 상하이 흥차오 국제공항 운항편수는 2019년의 75.7%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S&P 글로벌레이팅스 루이스쿠지스 아태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이동성 지수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팬데믹 영향권을 벗어나고 있다”며 “중국은 올해 소비와 서비스가 경제 회복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5.5%로 기존 대비 0.7%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지표만 놓고 보면 회복세는 아직이다.

중국의 1~2월 재정 수입은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이 중 내국소비세 세수는 전년 대비 감소폭이 18.4%에 달한다.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갑을 닫고 있다는 얘기다. 산업 이익 역시 1~2월 전년 대비 22.9% 감소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0

KB금융그룹 | 국민의 편에서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요즘같은 때는 KB증권에서 Parking!

조건 NO! 한도 NO!
단 하루만 맡겨도 수익금이 붙는
KB증권 발행어음형 CMA

**파킹통장도
KB증권이 좋은 이유!**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초대형투자은행(B)만 가능하니까
(투자명고 사항 및 마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음)

**AA+ 높은 신용도로
믿을 수 있으니까**
(신용등급 AA+, 2022.3.29. 한국신용평가)

**자동투자 서비스로
알아서 투자해 주니까**
(별도 신청 필요)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0496호(2023년 2월 16일~2024년 2월 15일)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 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 방법 등에 관하여 발행어음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발행어음은 만기 전 중도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 상환 수익률이 적용됩니다 (중도 상환 수익 변경 시 홈페이지 참조). *발행어음 수익률은 입금 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행어음은 회사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발행 한도를 제한하므로 발행 한도 초과 시 신규 또는 추가 매수가 사전 예고 없이 중단될 수 있으며, 그 밖의 당사 사정에 의해 발행이 중단되어 매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CMA의 입금액은 발행어음에 투자됩니다. *발행어음은 발행사 신용등급(AA+, 2022.03.29. 한국신용평가)의 신용위험(부도 또는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 0, -순으로 구분). *발행어음은 발행사 신용위험(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원금 및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를 위한! **개비증권**

지금 바로 파킹하기